

LG-Caltex

LG-Caltex 정유와 여자배구단

최선 추구를 향한 2인 3각

이 병 무

〈LG-Caltex정유 홍보광고팀 부장〉



-Caltex정유를 대표하는 스포츠단은 두말할 것도 없이 여자 배구단이다. 사실상 현존하는 국내 단체 경기팀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모두 이루어낸 자랑스런 존재이다.

우리나라 스포츠 사상 처음으로 이룩한 최고 권위대회인 대통령배 6년 연속 우승, 정말로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이냐는 질문을 받곤 하는 92연승 기록은 21세기 정유 및 석유화학 기업의 World Pacesetter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LG-Caltex인의 좋은 벤치마킹 대상이다.

LG-Caltex정유의 여자배구단은 「잘 살아보세」로 대변되던 제3공화국시절에 탄생했다.

이때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은 자체 스포츠팀을 창단하던 「기업스포츠팀의 베이비 붐」시절이기도 했다.

당시 스포츠는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하여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국민적 분발을 촉진시키려는 국가 지도자의 의지를 관철하는 수단으로 상당 부분 활용되었다.

동기야 어쨌든 경제적으로 빈궁한 나라에서 그래도 운동선수들의 힘찬 모습은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벤치마킹 대상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각종 국가 대표팀의 활약은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을 알리는 좋은 홍보 수단이 되었다.

당시의 이런 활동들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기는 어렵지만 국가 발전에 숨은 공로를 남긴 것은 틀림없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홍보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 스포츠팀의 소속 국가나 기업이 본연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실체가 있어야 한다.

다행히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설 만큼 성장하여 세계 만방에 「스포츠만 잘하는 나라」가 아니라 「스포츠도 잘 하는 나라」가 되었다.

이런 면에서 LG-Caltex정유와 여자배구단은 정말 잘 어울린다.

LG-Caltex정유가 정유에서 석유화학까지 21세기를 향한 도약을 시작하던 90년대 초반부터 여자배구단은 이에 화답하듯 무적함대로서의 승승장구를 시작했다.

LG-Caltex 여자 배구단이 우리나라 스포츠 역사를 선

도해 나가던 시절, LG-Caltex정유도 유난히 많은 기록들을 작성해 나갔다.

업계 최초의 고객센터팀의 창설과 고객만족 해피콜 제도 도입, 업계 최초로 스타주유소 선발대회 개최, 업계 최초로 전임직원 현장 근무, 업계 최초로 정례 대고객 사은 문화행사 개최, 업계 최초로 SH급 기술린 엔진오일 발매, 업계 최초로 국제 산업안전 콘테스트 2년 연속 1위, 업계 최초로 ISO 9000 획득, 업계 최초로 ISO 14000 획득, 업계 최초로 국제 신용평가 A3 획득, 업계 최초로 포춘지 선정 1인당 매출액 세계 5위, 업계 최초로 환경대상 획득, 업계 최초로 환경 친화기업 선정, 업계 최초로 브랜드 휘발유 테크론 출시...

이외에도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찬란한 성과가 이어졌다.

그래서 LG-Caltex정유는 「회사도 최고, 배구도 최고」라는 칭찬을 듣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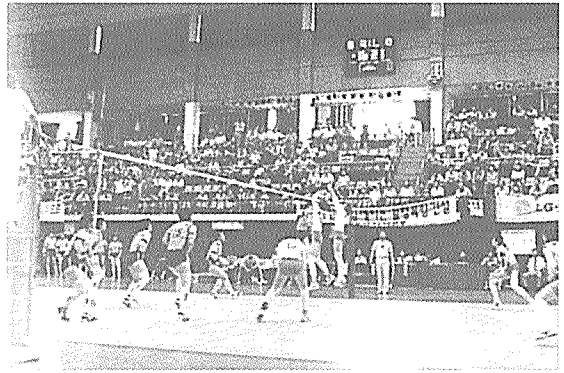
흔히 기업에서 스포츠팀을 육성할 때 스포츠를 판매 신장과 연결하는 스포츠 마케팅의 수단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도로 직접 스포츠팀을 운영하기도 하고 스포츠 이벤트를 주최 또는 협찬하기도 하며, 스포츠팀이나 선수를 후원하기도 하는데, 이 모든 활동을 스포츠마케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LG-Caltex정유가 육성하고 있는 여자 배구단과 남자 테니스단은 애초 이와 같은 스포츠 마케팅 개념에 입각해 창설된 것은 아니며, 스포츠 진흥을 위한 공익 사업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공익사업으로서의 명분과 순수성을 유지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회사 마케팅에도 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니 금상첨화인 셈이다.

사실 기업의 생존 경쟁과 스포츠의 승부는 많은 유사점을 갖고 있다. 중요한 경영 정책 결정을 앞두고 고뇌에 찬 불면의 밤을 보내며, 최적 의사 결정을 모색하는 LG-Caltex정유 최고 경영자나 승부의 분수령에서 피말리는 한점 승부를 위한 승부수를 던져야 하는 LG-Caltex정유 여자 배구단 감독의 결정은 그 규모와 영향력에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일맥상통할 것이다.



중요한 프로젝트의 완수를 위해 밤샘 작업도 마다 않는 LG-Caltex정유 임직원의 정열과 결승전에서의 팀 승리를 위해 진통제를 맞고 출전하는 한이 있더라도 온몸을 불사르겠다는 LG-Caltex정유 여자 배구단 선수들의 투지 또한 마찬가지다.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한 최선의 준비와 헌신적인 노력은 항상 승리의 월계관으로 보답받기 마련이다.

오늘도 또한 내일도 스포츠 정신이 지향하는 「공정한 룰속에서 정정당한 승부」에서 승리하기 위한 LG-Caltex정유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LG-Caltex정유의 기업 정신이며 무적 LG-Caltex정유 배구단의 저력인 것이다. ♣